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꿈수 부리나

### 신규 채용 정규직 비중 줄고 무기직 비율 크게 늘어

### 1분기 무기직 비율 인터넷진흥원 100%, 전파진흥원 67%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채용 중 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도 정책' 기조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는 등 일각에서는 편법을 취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기업·공공기관 12곳의 신규 채용규모는 187.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2.93% 수준인 155.5명이고, 무기계약직은 17.06% 수준인 3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입주기관들의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당장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801.5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95.30%인 2670명이었다.

또 지난 2016년에도 총 2248.75명 중 정규직은 2148.75명으로 95.55%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중이 95% 수준을 이어오다가 올해 1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83%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뜻이다.

반면, 무기계약직 비중은 2016년 4.44%(100명), 2017년 4.69%(131.5명) 등 5% 이하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17.06%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6년 144.75명의 신규직원 중 무기계약직은 9명을 채용해 무기계약직 비중이 6.2%에

■ 최근 3년 신규채용 규모 및 고용형태

	올해 1분기	2017년	2016년
전체	187.5명	2801.5명	2248.75명
정규직	155.5명	2670명	2148.75명
무기계약직	32명	131.5명	100명
무기계약직 비율	17.06%	4.69%	4.44%

불과했다. 2017년에는 560명 중 61명을 채용하면서 10.89%까지 올랐다가 올해 1분기에는 52명 중 14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그 비중이 무려 26.9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비중이 2016년 27.94%(38명)에서 지난해 34.66%(26명)까지 오르다가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12명의 신규직원을 100%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역시 신규채

용때 무기계약직 비중이 2016년 45.83%(33명)에서 지난해 45.45%(35명)로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3명을 채용하면서 66.66% 수준인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단 올해 1분기 채용규모가 지난해 신규채용의 6.69%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입주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당장 무기계약직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고용규모를 늘려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무기계약직 비중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단순히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무조건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회사 경영 발전방향 모색 아이디어 공유

### 한전KDN 리더 워크숍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최근 2일 일정으로 박성철 사장과 경영진, 본사 팀장, 전국 사업소장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영현안 대응 및 회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공유됐다.

박성철 사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일

자리 창출, 공공기관 혁신 등 대내외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응해 도전하는 사업, 변화된 경영시스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BEST KDN 혁신 달성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회사의 혁신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KDN은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의견을 중장기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aT, 인천공항에 수출농식품 홍보관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 병호)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 내에 수출유망 농식품과 선불용 식품 등을 입점시키는 등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을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판매홍보관은 지난 8일 aT와 시티면세점 간 체결한 우리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것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게 된다.

판매홍보관의 명칭은 'Korea Gourmet Market'으로 수출유망 농식품, 여행용 식품, 한국 농식품 선물세트 등 국

내산 원료를 사용한 우수 농식품 약 130개 품목이 입점, 우수한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시장개척에 노력 중인 국내 중소식품기업의 판로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백성철 aT 식품수출이사는 "인천공항은 연간 6200만명이 이용하는 한국의 대표 출입국 관문으로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우리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장소"라며 "이번에 시티면세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꿈의 무대 오를 뮤지션 찾습니다"

### EBS 헬로루키 하반기 모집

꿈의 무대에 오를 신인 뮤지션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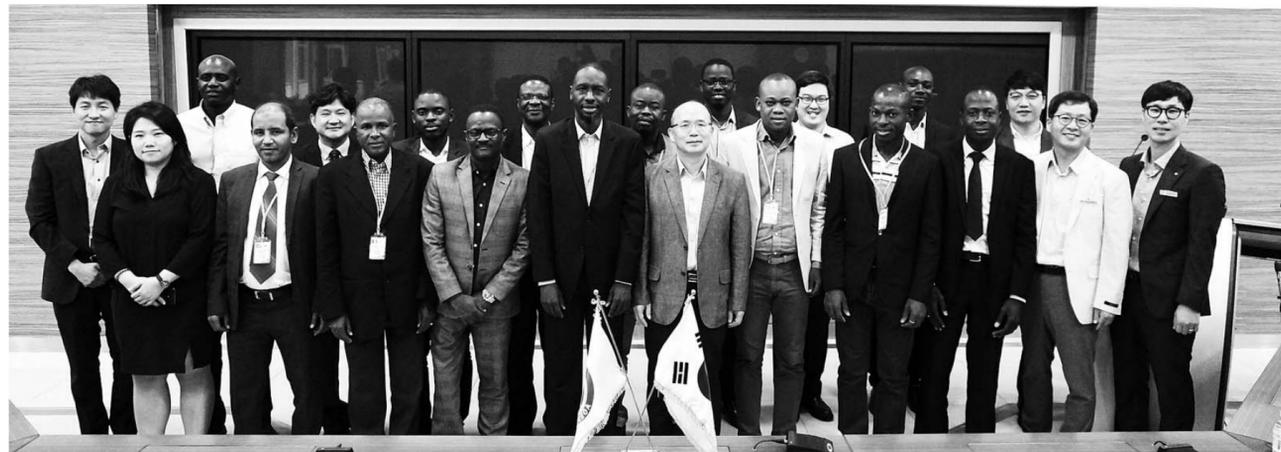
'2018 EBS 헬로루키 with KOCCA(이하 2018 헬로루키)'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

2018 헬로루키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위원장 김영준)과 'EBS 스페이스 공감'이 함께 진행하는 국내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국가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잠비나이 등 실력파 뮤지션을 다수 배출한 국내 최고 권위의 신인 등용문이다. 올해 헬로루키 선정은 상반기(3-6월)

와 하반기(6-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하반기 모집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모든 음악 장르의 신인 뮤지션으로, 앨범을 발매한 적이 없거나 최초로 낸 앨범 발매일이 2년을 넘지 않은 솔로 및 그룹 뮤지션이다.

하반기 헬로루키로 선정되는 5팀은 'EBS 스페이스 공감' 출연을 비롯한 국내 음악 페스티벌과 기획공연 무대에 오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 또는 'EBS 스페이스 공감' 홈페이지(www.ebsspac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900-6397.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전력이 서아프리카 전력공동체 소속 12개국 총 16명의 전력회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개설한 ESS(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해외 교육과정 참가자들이 입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서아프리카에 에너지 핵심 신기술 노하우 전수

### 에너지 저장 장치 해외 교육과정 공기업 최초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17~20일까지 4일간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 서아프리카 전력공동체 소속 12개국 총 16명의 전력회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ESS(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해외 교육과정을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개설, 시행한다.

한전은 세계은행(WB)과 손을 잡고 신

재생에너지 및 ESS분야의 잠재력을 보유한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5개월간 과정개발, 과목별 전문 강사섭외 및 교육생 홍보·유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전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ESS 국내 프로젝트 적용현황 및 신재생에너지와 ESS 패키지 해외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

고, PMS, PCS, BMS 등 주요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계통에 적용된 ESS 설비 및 765kV 변전소 등을 차례로 견학해 에너지 신기술 분야 핵심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신기후체제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환경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에너지 신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ESS 분야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상

용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 각국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한전의 에너지 분야 최신훈련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ESS분야 다개국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매년 이와 같은 에너지 신사업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한전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